



한국—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편저

한국-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편저

China Intercontinental Press

S3873/01

대표고문: 자오치정(趙啓正)
대표기획: 리빙(李冰)
고문: 장뢰이지에(張瑞杰) 천평진(陳峰君)
 팡밍디(方銘迪) 징뢰이빈(靜瑞彬)
편집장: 궈창지엔(郭長建)
부편집장: 우웨이(吳偉) 레이시아(雷珈)
원고저자: 장팅옌(張庭延)
책임편집: 탕허웨이(湯賀偉) 추리중(初立忠)
편집보조: 위엔징(遠景) 리지에(李杰) 장메이징(張美景)
번역: 박점옥(朴点玉)
사진제공: 신화사(新華社)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中國人民對外友好協會)
 상해시 인민정부신문판공실(上海市人民政府新聞辦公室)
 중국장애인예술단(中國殘疾人藝術團) 등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中国—韩国 / 国务院新闻办公室编.
—北京: 五洲传播出版社, 2003.10
ISBN 7-5085-0330-9

I. 中... II. 国... III. 中外关系—韩国—画册
IV. D822.331.26-6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3)第 092106 号

한국—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편저

出版发行: 五洲传播出版社
设计制作: 京辉工作室 王 兢 李 松
印制: 深圳市星嘉艺印刷有限公司
字数: 19千字
图 片: 117幅
开 本: 12开 260 × 250 mm
印 张: 11
版 次: 2004年10月第1版 2004年10月第1次印刷
印 数: 0001-7000册

ISBN 7-5085-0330-9D · 152

정가: 인민폐 158.00 위엔(元)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의

목 차

1

외교관계

29

경제통상교류

문화교류

61

민간우호교류

95

부록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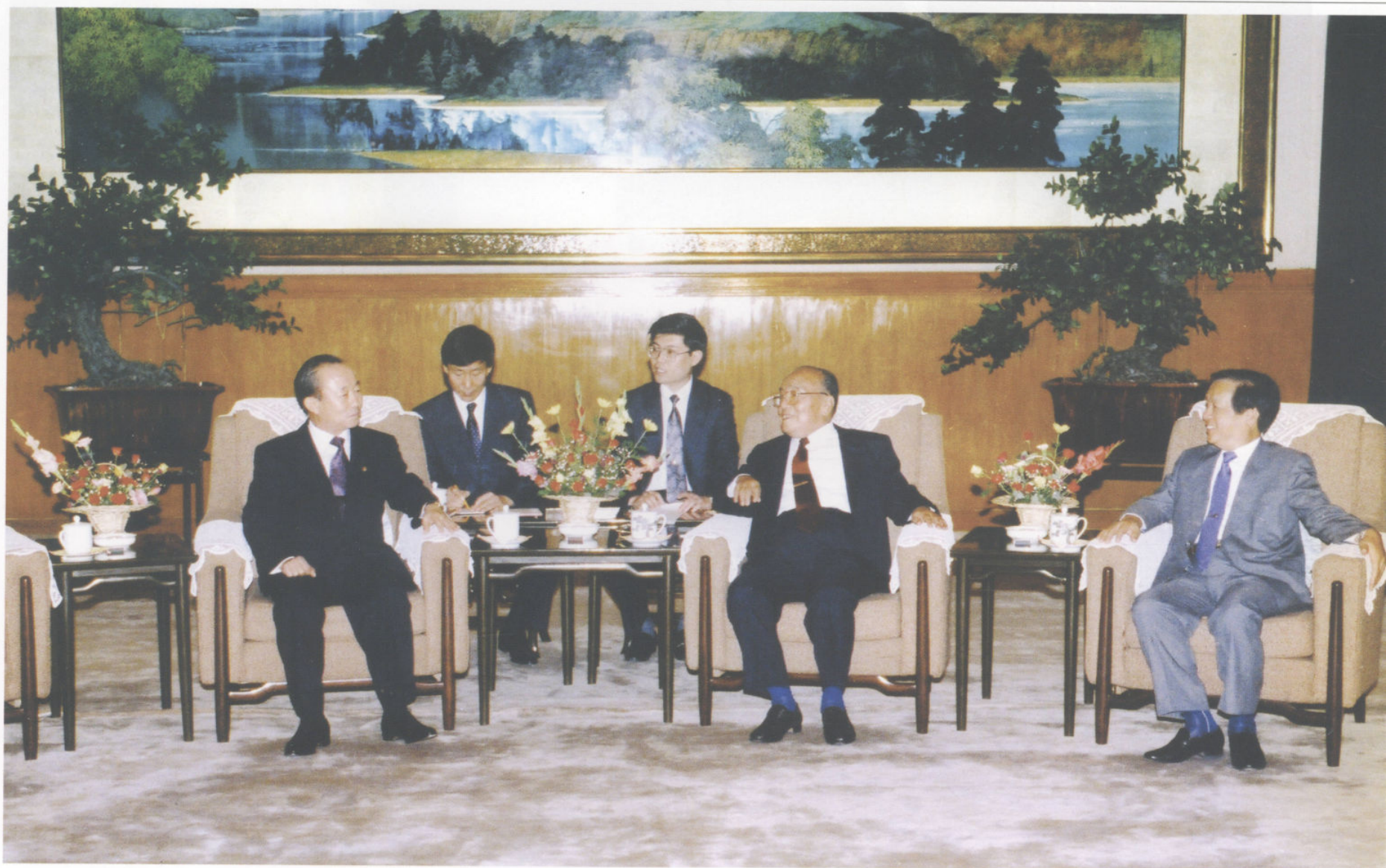
역의 교류와 협력이 부단히 확대 발전되었다. 1998년 11월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하여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양국의 21세기를 지향하는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을 공동 발표했다. 2003년 7월, 방중(訪中)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것 등의 연합 성명을 발표했다.

1992년 8월 24일, 치엔치천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이상옥(李相玉) 외교부장관은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의 정식 수교 공동성명을 서명했다.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92년 8월 24일부터 대사급 외교관계 상호 승인과 수립 결정을 공표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 및 중국측의 하나의 중국 및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의 입장을 존중할 것을 승인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민족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실현과 통일의 염원을 존중하고 한민족의 자주적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서울과 베이징에 각각 대사관을 설치했다.



1992년 8월 24일, 치엔치첸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이상옥(李相玉) 외교부장은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의 정식 수교 공동성명을 서명했다.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92년 8월 24일부터 대사급 외교관계 상호 승인과 수립 결정을 공표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 및 중국측의 하나의 중국 및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의 입장을 존중할 것을 승인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민족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실현과 통일의 영원을 존중하고 한민족의 자주적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서울과 베이징에 각각 대사관을 설치했다.

1992년 8월 24일, 양상쿤(楊尙昆)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이상옥
외교부장관을 접견했다.





1992년 9월 29일, 양상곤 국가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환영연회석을 마친, 중국을 국빈방문한 노태우 대통령 및 일행을 영접했다.



1992년 9월 29일, 장쩌민(江澤民) 중공 중앙총서기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우호적인 회담을 나눴다.

1994년 3월 28일, 장쩌민 중공 중앙총서기는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방중 환영의식을 거행했다.



1994년 10월 31일, 한국을 방문한 리펑(李鵬) 중국 국무원총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마련한 환영연회석에 참석 연설을 했다.





1995년 4월 18일, 김영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국을 방문한 치아오스(喬石)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을 접견했다.

1995년 5월 10일, 이홍구(李洪九) 총리의 방중 환영을 위해 리펑 중국 국무원총리가 인민대회당 동문외(東門外)광장에서 환영의식을 거행했다.





1995년 11월 13일에서 17일까지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 방한했다. 김영삼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주석은 청와대에서 회담을 나눴다.